

## 꿈 너머의 '또 다른 멋진 나' 를 찾아서

- 이름 : 한윤정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네스코 파리본부, 국제수자원계획(IHP) 부서  
UNESCO HQ(Headquarters), IHP(International Hydrology Programme)
  - 직위 : 인턴(연구보조)
  - 지원경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지원
  - 근무기간: 2014.6-2014.8
- 

### 1. 지원동기: '나는 국제사회에 이바지 하는 여성 환경 전문가가 될 테야!'

나는 여성 환경 전문가를 꿈꾸는 15살의 어린 학생이었다. 확실한 그림은 없었지만 언젠가 넓은 세상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찬 여성 환경가가 되리라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 이라는 단어로 떠들썩했던 시점에, 나는 TV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어린 나에게, 세계무대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그 때 나는 아마도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고, 나도 언젠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깝게 있고 싶어진다.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국제기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대학교를 다녔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막상 다가가려 하니 멀기 만한 그대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유엔환경계획(UNEP) ANGEL이라는 UNEP 국내지부 산하의 환경활동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다. UNEP ANGEL 활동을 통해, 나는 학교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환경영화제 기획, 그린캠페인 주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국내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보다 실질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었다. 훗날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담당했을 때 큰 도움을 주었다. 만약 국제기구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국제기구 관련 활동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경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로 부터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의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유창한 영어실력과, 폭 넓은 지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했다. 영어공부 또한 꾸준히 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영어논문들을 읽었다. 실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주최하는 환경관련 활동들도 꾸준히 겸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내가 관심 있는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2013년 어느 겨울날, 나는 UNESCO 국제수자원계획(IHP)부서에서 나의 전공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회가 온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고, 이제 ‘그 기회를 잡을 때’ 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도 그날, 가슴이 뛰었던 소리를 잊을 수 없다.

## 2. 지원서 작성: 핵심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관심 있는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 날 이후, 나는 약 한달 동안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는 단순히 경력을 보여주기보다,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왜 일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많은 지원서를 받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핵심이 잘 드러나는 간결한 글이 보다 좋을 것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세이 작성 시에는 지원 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꼼꼼히 읽고, 관련 내용을 녹여 쓰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나의 경력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적었다. 중요한 점은 본 부서에서 인턴으로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부합하는지를 보다 정확히 그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거친 나의 러브레터는 1월 중순 UNESCO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졌고, 그로부터 3주 뒤 긍정적인 답장을 받았다.

내가 지원한 IHP부서에서는 마침 인턴을 뽑고 있는 운이 좋은 상황이었다. 인사 담당자는 나의 지원서를 보고 관련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지원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그녀는 일단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가 해당부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나의 경력들에 대한 상세한 질문들을 비롯하여 지원 동기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대부분 내가 제출하였던 지원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다소 난감하거나 난해할 수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지원서를 쓰면서 읽었던 많은 UNESCO 관련 자료들과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큰 어려움이 없이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보통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거리상의 문제로 전화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인터뷰 전에 본인이 작성한 지원서와 해당부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기소개는 경우는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막상 담당자와 전화를 맞대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떨려서 평소에 잘 말하던 것들도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몇 번의 연습덕분에 그리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준비한 말들을 모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40분가량의 인터뷰를 끝내고, 마침내 UNESCO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약 3개월간의 인턴기회를 얻었다. 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 3.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 UNESCO에서 환경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UNESCO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 ‘UNESCO에서 환경도 한다고요?’ 라는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 UNESCO는 문화유산보호의 이미지가 강해서 사람들은 보통 UNESCO의 업무를 문화유산 보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UNESCO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교육과 과학을 더불어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일했던 IHP(International Hydrology Programme)부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의 타 부서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었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라고 하면 대부분 유엔 환경계획(UNEP)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녹색성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를 아우르는 국제기구는 꽤 많은 편이다. 그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과 세계기상기구(WMO)와 UNEP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도 환경 분야와 관련된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그 분야와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 4. 인턴 수기: 미션을 수행하라

IHP부서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매 2년 마다 열리는 크게 열리는 IHP Council 회의준비 및 진행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특히 IHP Council의 경우는 2년마다 개최지를 바꾸면서 열리는 부서의 큰 행사였는데, 마침 인턴을 가게 된 기간 중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밖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 지원할 때는, 원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맞춰서 인턴기간을 정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이 때하게 되었다.

인턴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첫 번째로 맡았던 업무는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자원 분야의 이슈 및 논문들을 정리하고, 상사에게 알려주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문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및 논문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약 3시간동안을 연구 논문들과 씨름하고 나면 상사와 함께 그 날 업데이트 된 연구 상황들을 공유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UNESCO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나의 상사의 경우는 인턴에게 단순히 일을 알려주기보다는 해당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중요시 여겼는데, 이런 상사의 성향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기구도 다른 사회와 다르지 않게, 사내에 다양한 상사의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턴기간 중 배울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데, 프로젝트나 일이 많아서 바쁜 상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일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중시하는 상사를 만나게 되면 나와 같이 관련 보고서나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맡았던 업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메일을 수시로 주고받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일이었다. 업무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교수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교신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업무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외부 인사들에게 보내는 장문의 공식적인 메일을 작성하여 상사에게 검토를 받으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호되게 혼이 나고 나온 그 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제기구는 여러 나라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여 협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역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메일이라도 외교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성차별적 언어, 통용되고 있지 않은 약자 등) 단어나 미세한 차이로 문장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조사사용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나는 외교적인 글쓰기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상 학문적인 글쓰기만을 해왔던 습관 때문에, 처음부터 외교적인 메일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글을 한번 쓰더라도 몇 번씩 읽어보고 고치기를 반복해야 했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니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편하게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에는 상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턴기간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업무를 말한다면 IHP Council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일이었다. 나는 회의가 열리기 약 한달 전부터 회의를 준비를 위해 기구 내에서 진행되는 굵직굵직한 부서 회의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진행사항들을 논의하는 스태프 회의를 참여하면서,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회의들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지위의 고하 없이 매우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다. 맨 위의 부서장부터 인턴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도출해 내는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들과는 사뭇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다. 행사가

시작 된 후, 나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안내를 포함하여, 회의장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듣고 요약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이어폰을 끼고 회의를 참관했던 시간이었다. 공통의 주제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국가들의 입장차이라든지, 또 그런 입장들을 하나로 조율하고 맞추는 UNESCO 사무국 직원들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TV에서 우연히 보았던 그 때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 공간에서 나는, 한 번 더 이곳에 반하게 되었다.

## 5.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두 가지 열쇠

### (1) 첫 번째 열쇠 : 시간의 열쇠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낯설었던 것은, 자유가 주어진 업무환경이었다. UNESCO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업무 시간과 점심시간이 매우 유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나의 경우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배정받은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아무도 나의 출근과 퇴근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점심시간 또한 매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한동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낯설어 했었다. 정해진 시간의 틀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다보니, 시간을 스스로 활용하는 법에 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일주일동안 인턴생활을 거치면서, 곧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UNESCO에서는 담당부서의 인턴이 다른 부서에 손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면서 다른 부서의 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었다. 비록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한 번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 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보았다.

더불어 점심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잊지 못 할 추억을 덤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UNESCO 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따로 있었다. 음식종류도 다양하고, 가격 또한 파리의 물가에 비해서 합리적인 편이었지만, 무급으로 인턴생활을 하는 나에게서는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주로 인턴들은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싸오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점심식사는 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인턴들과 함께했는데,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모여 가까운 정원에 나가서 점심을 먹곤 했다. 우리는 주로 사무국과 그리 멀지 않은 에펠 탑 앞 정원에 나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의 주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포함하여 환경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넘나들었는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 (2) 두 번째 열쇠 : 질문과 대화의 열쇠

한국 학생들은 모두 질문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곧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선 선생님이 질문을 유도하려고 하면, 교실이 매우 조용해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꿈꾼다면, 이제부터 이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다. 여러 일들이 다른 부서와의 협력 그리고 타 국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아는 것을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으로 국제기구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다면, 모르는 것들이 투성이다. 복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관련 보고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업무보고는 어떤 체계로 해야 할지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인턴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단연 ‘질문’ 하는 자세와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나 또한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아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레짐작하고, 대화를 거치지 않은 나의 판단이 후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고,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질문하고 대화한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 6. 인턴을 마치며

바쁘고 다사다난 했던 약 3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기 하루 전날, 나는 파리의 개선문에 올라가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었다. 낯선 곳에 살면서, 꿈꾸던 곳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었던 멋진 시간들이었다. 모든 것들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았기에 쉽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았다. 상사의 미션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해 사무실에 홀로 남아 혼자 자책했던 시간들, 메일하나를 쓰기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괴로워했던 시간들, 회의에 참석하며 감회에 젖었던 많은 시간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만큼 즐거웠던 순간들도 많았다. 날씨 좋은날 친구들과 함께 에펠탑 앞에서 즐겼던 점심시간, 처음으로 국제회의장에 발을 들였을 때의 느꼈던 그 짜릿한 감정은 아마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성숙할 수 있었고, 꿈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꿈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낄 때, 앞이 막막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보았던 구절이 있다.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 할 테니’ 라는 말이다. 지금 걷는 길이 외롭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몰라 힘들 때도 분명 있다. 내가 하는 이 많은 일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짐작만으로 나의 꿈을 묻어두지 말자. 내일의 내 모습은 어쩌면 한 발자국 더 꿈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꿈을 향해 걷는 그 길을 가다보면, 우리 모두 저 너머의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끝’

**[첨부] UNESCO에서의 순간들**



IHP Council을 마치고 나서 부서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UNESCO내 카페에서의 티타임



UNESCO 신분증 받은 첫날 기념사진